



# 진흥고 야구부의 겨울은 여름 보다 뜨겁다

제주 전국우수고교 윈터리그 참가 5개 고교와 겨루며 실력점검  
 9일부터 영암서 마지막 담금질... "야구대제전 우승 최종 목표"

우승고지를 향한 진흥고 야구부의 꿈이 제주에서 영글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요즘 야구 열기로 뜨겁다. 제주종합운동장에서 제 10회 전국우수고교 윈터리그 야구대회가 열리면서 아마추어 선수들의 합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진흥고도 제주에서 올 시즌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팀 중 하나다. 1월30일 제물포고와 첫 경기를 치른 진흥고는 1일 제주고에 이어 포철고(3일), 경남고(4일), 효천고(5일), 부산고(6일)와 경기를 갖고 실력 점검에 나선다.

광주 동성고·광주일고와 함께 광주 야구는 물론 한국 프로야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진흥

고는 올 시즌 좀 더 확실하게 '진흥고'의 이름을 알리겠다는 각오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진흥고는 지난 1월 보성에서 기초 다지기에 들어간 뒤 1월28일 제주도로 무대를 옮겨 실전 연습을 하고 있다. 이들이 꿈꾸는 목표는 우승이다. 하지만 멀리 가기 위해 천천히 그리고 적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윤현필 감독은 "크게 올 시즌 목표를 잡자면 우승이다. 하지만 일단은 작년 보다 더 좋은 한 해, 쉽게 지지 않는 팀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승을 얘기한 윤 감독의 자신감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 '테이블 세터' 손성호와 김용호가 포문을 열고 김재현이 중심을 잡고, 오정민이

빠른 발로 마무리하는 타선의 짜임새가 좋다. 에이스 최상인과 안방마님 김기연이 호흡을 맞추는 배터리도 최강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팀 주축인 3학년들이 수준급 실력을 갖추면서 각 구단의 스카우트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팀이기도 하다.

진흥고는 제주에서의 경기와 훈련이 끝난 뒤 9일 영암으로 자리를 옮겨 마지막 전력을 가다듬는다. 실수를 줄이기 위한 세밀한 캠프가 예고된다.

윤 감독은 "전력만으로는 중상위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전력은 좋지만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경기에서는 수비가 문제가 된다. 3월까지 다듬을 것은 다듬고 다질 것은 다지면서 올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하영민(넥센)을 앞세워 대령기를 들어 올렸던 진흥고가 꿈꾸는 우승 세리모니. 이번 시즌 막바지에 연출하고 싶은 훈훈한 모습도 있다. 선·후배가 한데 어울려 야구대제전 우승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앞서 대회가 부활한 2013년에는 프로 선배들이 총출동한 광주 동성고가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해 대회에서는 이호준(NC)을 중심으로 풀밭 몽친 광주일고가 우승 트로피를 넘겨받았다. 세 번째 우승컵은 이대진·김진우(이상 진흥고), 임창용(삼성), 나성범(NC), 양의지(두산), 손주인(LG) 등을 배출한 진흥고가 챙기고 싶다. 진흥고를 더 빛내고 후배들에게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감독은 "지난 대회에서 하필 나성범이 팀 일원이었고, 양의지와 손주인이 결혼을 했다. 올해는 우승을 위해 선배들이 역할을 하고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며 "나는 뛰는 야구 생각하는 야구, 인성을 갖춘 야구를 강조하면서 진흥고의 올 시즌을 잘 준비하겠다. 희생번트가 있는 등 야구는 희생이다. 희생을 통한 진흥고의 힘찬 2015시즌을 그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제주=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구단 스카우트들 스피드건 들고 유망주 찾기

날씨는 춥지만 아마 그라운드엔 겨울에 더 뜨겁다. 유망주를 선별하고 또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미 아마야구의 시즌은 시작됐다.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 10회 우수고교 윈터리그에는 특별한 관람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각 구단의 스카우트들이 제주까지 날아와 스피드건을 들고 기록을 적으며 유망주 찾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제물포고와 부산고의 경기가 진행된 지난 2일. 경기 마지막 이닝을 앞두고서 잠잠해졌던 스카우트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갑작스레 마운드에 오른 1학년 선수의 공에 눈길이 쏠린 것이다. 이름과 학년을 체크를 하는 등 스카우트들은 새로운 세상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들만의 비밀 노트에 뭔가를 써내려갔다.

프로야구단에서 비시즌에 가장 바쁜 팀 중 하나가 스카우트팀이다. 고등학교들을 돌고, 겨울 동안 진행되는 대회와 연습경기 등을 쫓으면서 새로운 재목을 찾고 미리 접착어 놓은 선수들의 컨디션 등을 체크 하는 등 한해 농사를 일찍 시작하기 때문이다. 전국이 이들의 무대다.

아마추어 감독들에게도 비시즌은 한 시즌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1학년 신입생들의 면면을 파악하고, 전체 전력을 조율하는 것은 물론 3학년들의 진로까지 챙겨야 하는 바쁜 시간이다.

연습경기와 윈터리그 등의 대회는 한 시즌을 살펴보는 예비 무대이자 취업무대인 셈이다. 고교 팀과의 경기는 물론 대학 팀들과의 연습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얼마 전 영암으로 전지훈련을 다녀왔던 광주 동성고는 장재근 감독이 이끄는 흥익대와 연습경기를 했다. 진흥고도 제주 윈터리그 참가에 앞서 허세환 감독의 인하대와 연습 경기를 치렀다. '형남'들을 상대로 실력을 점검하는 것이기도 하고 진로를 위한 어필 무대이기도 하다.

서울에 대학 팀들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학교 팀에 비해 지역팀들은 소속 선수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대학 팀들이 동계훈련을 위해 지방을 찾는 겨울은 지역 팀들에게 실력도 쌓고 진로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제주=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뉴잉글랜드' 슈퍼볼 차지

MVP에 쿼터백 톰 브래디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츠가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에서 시애틀 세이호크스의 2년 연속 우승 도전을 좌절시키고 10년 만에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되찾았다.

뉴잉글랜드는 2일(한국시각)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피닉스대학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49회 슈퍼볼에서 4쿼터 막판 신인 세이프티 말콤 벤틀리의 극적인 인터셉션에 힘입어 시애틀을 28-24(0-14 14-0-10 14-0)로 누르고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다.

이로써 뉴잉글랜드는 2002년, 2004~2005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로 슈퍼볼 정상을 밟았다.

정규 시즌에서 12승 4패를 거두고 아메리칸풋볼 콘퍼런스(AFC) 1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뉴잉글랜드는 볼티모어 레이븐스, 인디애나폴리스 폴츠를 꺾고 슈퍼볼에 올라 '다윈 챔피언' 시애틀을 마저 넘어섰다.

반면 2004~2005년 뉴잉글랜드 이후 NFL 역대 여덟 번째로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시애틀은 경기 종료 막판 역전의 기회를 잡았으나 쿼터백 러셀 윌슨의 패스가 가로채기를 당해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미국의 연인'으로 불리는 스타 쿼터백 톰 브래디는 4쿼터에만 터치다운 패스 2개를 찰라하는 등 터치다운 패스 4개를 성공시켜 우승의 일등공신이 됐다. 이미 세 차례나 슈퍼볼 우승 반지를 낀 브래디는 이번 우승으로 '전설' 조 문태나, 테리 브래드쇼와 함께 최다 우승(4회)을 기록한 쿼터백이 됐다.

이에 반해 슈퍼볼 우승 경험이 있는 쿼터백을 상대로 10승 무패를 기록했던 시애틀의 흑인 쿼터백 윌슨은 결정적인 인터셉션을 허용하며 브래디를 넘는데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 슈퍼볼 입장권 506만원

역대 최고가...액면가의 5배 올라

2일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피닉스대학 주경기장에서 열린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 입장권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최대 티켓 판매 사이트인 스티브허브(StubHub)와 NFL 티켓 익스체인지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스티브허브에서는 평균 4600달러(약 506만원), NFL 티켓 익스체인저에서는 4131달러(약 454만원)에 각각 슈퍼볼 티켓이 팔렸다. 이는 올해로 49회째를 맞는 슈퍼볼 역대 최고가로, 슈퍼볼 티켓의 액면가가 800달러(약 88만원)에서 1900달러(약 209만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5배 이상 가격이 뛰어오른 것이다.

그러나 팬들이 느끼는 체감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다. 슈퍼볼 티켓이 현지 날짜로 지난달 28일에 대부분 판매되면서 남은 티켓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9일에는 4500달러 이하의 티켓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토요일인 지난달 31일에는 7000달러(약 770만원)를 주고도 표를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ESPN은 전했다. /연합뉴스

"공 내놔~"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피닉스대학 주경기장에서 열린 시애틀 세이호크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츠의 미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슈퍼볼)에서 시애틀 세이호크스(오른쪽)의 리시버 크리스 매튜가 패스를 잡고 있다. /연합뉴스